



제3차 청년정책포럼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과제’

일시 2016. 6. 28 (화) 10:00~12:00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회의실 709호
주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3차 청년정책포럼

09:40-10:00	▶ 등 록
10:00-10:05	▶ 사회자 오프닝 사회 이종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05-10:10	▶ 개회사 박용호 위원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10:10~10:15	▶ 축 사 노 혁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세션〉 발 표	
10:15-10:30 (발표 15분)	발 표 1 ▶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과제 -청년 니트를 중심으로- 발표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30-10:40 (발표 10분)	발 표 2 ▶ 청년근로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발표 김문길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세션〉 토 론	
10:40-11:50 (토론 70분)	토 론 ▶ 청년 취업취약계층 정책 방향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이종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패 널 [정 부] 이준호 사무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위] 강민정 청년위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단 체] 문유진 대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백경훈 대표 (청년이여는미래) [학 계] 강영배 교수 (대구한의대학교) 이승렬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채창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50-12:00	▶ 정리 및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12:00~14:00	▶ 오 찬

발표 1
.....

제3차 청년정책포럼

◆ ◇ ◆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과제
- 청년 니트를 중심으로 -



김 기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요약

1. 청년 취업취약계층 정의

- 과거의 전통적 취업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적·선별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취업취약계층(청년, 니트, 근로빈곤층)을 포괄해 사회적·보편적 접근으로 정책 방향 변화

〈그림 1〉 청년 취업취약계층 대상 정책방향 변화



- 여기에서는 청년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니트(NEET)를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함

2. 청년 취업취약계층 니트 실태

- 1999년 영국을 시작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니트(NEET)*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국제비교 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 니트는 1999년 영국에서 학교 밖의 10대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출발했으나 일본('04)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를 거쳐 10대에서 20대를 포괄하는 청년층으로 확대

□ OECD에서는 '00년부터 각 국가별 니트 규모 추정 결과를 제시

○ 한국은 OECD 평균(15.4%)보다 높은 수준인 18.5%(12)를 보여

-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한국의 니트 비율은 높은 편이나
- 현행 OECD 니트 정의가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상황을 왜곡(과대추정)하는 측면이 있음
- OECD 니트 정의는 정규교육 참여자와 고용된 이들만을 니트에서 제외하여 비형식 교육참여자(사설 직업훈련기관, 학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되지 않음

〈표 1〉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 비율 (15-29세 기준)

단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OECD
2008	18.5	7.4	14.6	14.8	14.0	11.6	8.7	9.9	16.4	19.2	16.2	13.7
2009	19.0	8.5	16.9	15.7	15.6	11.6	11.0	12.0	22.3	21.2	16.8	15.4
2010	19.2	9.9	16.1	15.9	16.6	12.0	10.3	12.6	23.3	23.0	18.3	15.7
2011	18.8	10.1	15.9	15.5	16.4	11.0	9.1	11.8	24.0	23.2	21.8	15.7
2012	18.5	9.4	15.2	16.3	16.6	9.9	9.7	11.9	25.3	24.6	27.0	15.4
2013	-	7.2	16.0	15.6	16.3	9.7	9.4	12.3	26.8	26.1	28.5	15.5
2014	-	6.6	15.0	14.4	16.3	9.2	9.4	13.0	27.7	25.9	28.3	-

자료 : OECD(2016),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5 January 2016)

출처 : 김기현(2015), 한국의 청년 고용 현황과 니트(NEET) 국제비교.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pp. 61-7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보고서에 2014년 결과를 추가함

* 일본은 15-29세가 아닌 15-19세 결과임. 15-19세 OECD 평균은 2005년은 8.3%, 2006년은 8.2%, 2007년은 8.0%, 2008년은 7.9%, 2009년은 8.4%, 2010년 8.0%, 2011년 8.2%, 2012년 7.4%, 2013년 7.1%임

○ OECD 35개 국가별 자료(2000-2013)를 활용해 니트 비율과 사회·경제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 니트 비율은 인구규모, 불평등, 실업률 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반면,
- 경제 규모가 크고 고등교육 이수자가 많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니트비율은 낮게 나타남.

〈표 2〉 OECD 청년 니트비율과 사회·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15-29세 기준)

단위 : 상관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NEET비율	1						
② 인구규모(로그)	.387***	1					
③ 경제규모(로그)	-.654***	-.296***	1				
④ 고등교육 이수율	-.326***	-.038	.577***	1			
⑤ 불평등(지니계수)	.522***	.482***	-.256***	.046	1		
⑥ 실업률(%)	.535***	.066	-.350***	-.186***	.200***	1	
⑦ 고용률(%)	-.816***	-.219***	.601***	.360***	-.262***	-.617***	1

자료: 2000년~2013년까지 35개 OECD 국가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402표본의 상관계수 값임, *** p < 0.001
 출처: 김기현(2015), 한국의 청년 고용 현황과 니트(NEET) 국제비교,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pp. 61-7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년 니트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늘어나고 구직을 하는 니트보다는 구직을 하지 않는 비구직니트가 많음
 - '13년 OECD 평균을 보면, 15-19세 청년층의 니트 비중은 7.1%이지만 20-24세 니트 비중은 18.2%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구직니트보다는 비구직니트가 더 많고
 - (연령) 10대 후반과 20대 후반은 비구직니트의 비중이 높고 차이가 큰데 반해서 20대 초반은 두 집단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음
 - (교육) 중졸 이하 청년층이 고졸·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비구직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연령 및 교육수준별 니트 비율(15-29세 기준)

단위 : %	연령별			교육수준별		
	15~19세	20~24세	25~29세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구직니트(실업자)	2.8	8.5	8.0	5.8	7.4	6.9
비구직니트(비경제활동인구)	8.5	9.1	11.3	9.4	8.7	6.4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조사년도는 2013년임.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통해 청년 니트 규모를 추정된 결과

- 청년 니트의 규모는 '05년 18.0%에서 '10년 16.7%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14년에는 18.1%로 지난 10년 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표 4〉 청년(15-29세) 니트(NEET) 규모 추이(2005-2014)

단위 : %	노동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15-29세)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8차('05)	3.2	23.3	26.3	18.0	16.5
9차('06)	2.8	21.7	25.3	16.9	16.1
10차('07)	3.7	21.4	27.2	17.5	15.4
11차('08)	3.7	21.2	24.6	16.1	15.4
12차('09)	4.3	25.2	22.8	17.0	16.0
13차('10)	5.6	23.3	22.9	16.7	15.7
14차('11)	6.5	23.0	26.7	18.0	15.4
15차('12)	6.1	20.2	20.4	15.1	15.2
16차('13)	3.0	24.7	21.3	16.5	15.1
17차('14)	5.2	22.7	24.2	18.1	14.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8-17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종단면 가중치 적용 결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출처 : 김기현(2015). 제9장 청년층 고용,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pp. 149-173.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주1) 니트 정의 : 취업자가 아닌 15세에서 29세 청년들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 직업훈련기관에 통학(OECD는 포함) 중이지 않는 경우로 정의

주2) OECD통계와 차이(OECD 18.5%, 노동패널조사 15.1%, 경찰 15.2%)가 있는 것은 비형식교육 형태로 학원,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를 니트에서 제외하였기 때문

-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10대 후반(5.2%)의 니트 비중이 가장 낮고 20대 후반(24.2%)이 가장 높아 OECD와 유사
- 비구직 니트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8.7%),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져서'(21.9%)임
 - 구직단념자로 볼 수 있는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했다'는 응답은 9.3%로 나타남

3. 청년 취업취약계층 정책과제

① 청년 NEET에 대한 관심 제고

- OECD는 핵심정책대상으로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신규진입자,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대학 졸업자와 함께 NEET 청년을 선정
- OECD가 청년 니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니트가 가장 활동적인 시기의 유휴 인력화로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 일본은 '청소년의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15.9)을 새로 제정해 '16년 3월부터 정책 대상별로 구체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법령에 포함해 시행 예정

②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NEET 정의 및 정책접근

- 고등교육 비율이 높고, 비형식교육참여자가 많은 한국의 특수 상황을 반영 (OECD통계 각주처리)한 국제 비교 필요

③ 니트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니트 지원정책

- **(구직니트)** 기존 청년 실업자 지원 정책을 통해 접근하되,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이중노동시장 문제 완화
- **(비구직니트)** 취업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취업지원과 함께 사회적응, 문화활동, 학습지원, 상담 지원
 - 특히, 구직단념자를 위한 자신감 회복,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사회부적응자를 위한 목표설정 및 자아존중 프로그램 지원

발 표 자 료

청년 취업 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과제-청년 니트를 중심으로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06.2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1. 청년 취업취약계층 정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1. 청년 취업취약계층 정의

<p>인적 속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속성에 따라 취약계층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 장애인 - 고령자 ◎ 포괄적, 집단 내 이질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 속성 연계 대상 설정 (ex: 여성+가장=여성가장) 	<p>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여부를 소득으로 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 비소득 소득빈곤층 ◎ 개인보다는 가구 수준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속성과 연계 대상 설정
<p>근로빈곤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을 근로빈곤층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빈곤층 -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 ◎ 소득이나 빈곤 중심이라는 제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취약계층의 일부로 고려 	<p>정책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고시) - 중증장애인 1개월 이상 실업자 - 여성가장 중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로 1개월 이상 실업자 - 도서 거주자 1개월 이상 실업자



자료: 박찬임 외 (2007), 이규용 외(2013)

01. 청년 취업취약계층 정의



01. 청년 취업취약계층 정의

청년 근로빈곤층

◎ 청년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전통적인 빈곤은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앓거나 하는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결과로 나타나는데 비해서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상태를 경험하는 근로빈곤층 문제가 제기됨.

이는 새로운 빈곤층(new poverty)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자리 감소에 따른 하향취업,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 글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청년 근로빈곤층에 주목해 연구 결과(김문길 외, 2015) 소개하고자 함[별도 발표 예정].

01. 청년 취업취약계층 정의

청년 니트(NEET)

◎ 청년 니트(NEET)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는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

1999년 영국(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에서 학교 밖의 10대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출발했으나 일본(厚生労働省, 2004)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4)를 거쳐 10대에서 30대를 포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확대

국제적으로 니트는 청년 실업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취약계층으로 니트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함(김기현, 2015).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를 중심으로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의 정의

니트에 대한 논의는 영국과 일본을 거쳐 OECD에서 연령정의와 더불어 각 국가별 통계치 수집

유형	설명
영국의 Social Exclusion Unit(1999)	연령이 16-18세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았으며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
일본의 厚生労働省(2004)	비노동력인구(취업자 및 실업자 이외의 사람들) 중 연령이 15-34세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혼자이며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는 젊은이
OECD(2014)	연령이 15-29세(혹은 15-19세, 15-24세)로 형식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이

자료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厚生労働省(2004), OECD(2014)
출처: 김기현(2015)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의 정의

- 한국 2006년부터 논의 시작, 한국형 니트에 관한 공식적 정의와 규모 추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구분	연령	설명
남재량 (2006, 2011, 2012)	15-34세	- 국내에서 최초로 니트 규모 추정,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사용 - 취업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 입시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자, 기혼자 제외
금재호 외(2007)	15-29세	- 노동부 한국형 니트 규모 추정 의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사용 - 기혼자, 무급가족종사자와 실업자 포함
채창균 외(2008)	15-29세	- 니트 유형을 다양하게 정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사용 - 정의 1: "쉬었음" 응답한 경우, 정의 2: 정의1에 미혼 가사 포함, 정의 3: 정의 2에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기타 포함
김광석(2015)	15-29세	- OECD와 동일 기준 적용,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 취업자, 일시휴직자, 정규교육기관 재학중인 학생 제외

자료: 남재량(2006, 2011, 2012), 금재호, 전용일, 조준모(2007), 채창균·오호영·정재호·남기곤·김기현(2008), 김광석(2015)
출처: 김기현(2015)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 국제적 현황

- 15세에서 29세 기준 한국의 니트는 18% 내외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줌

- 한국의 니트 비중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보다는 낮으나 미국, 일본과 북유럽 보다 높음

- 다만, 비형식교육참여자(사설 직업훈련기관, 학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되지 않음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OECD
2008	18.5	7.4	14.6	14.8	14.0	11.6	8.7	9.9	16.4	19.2	16.2	13.7
2009	19.0	8.5	16.9	15.7	15.6	11.6	11.0	12.0	22.3	21.2	16.8	15.4
2010	19.2	9.9	16.1	15.9	16.6	12.0	10.3	12.6	23.3	23.0	18.3	15.7
2011	18.8	10.1	15.9	15.5	16.4	11.0	9.1	11.8	24.0	23.2	21.8	15.7
2012	18.5	9.4	15.2	16.3	16.6	9.9	9.7	11.9	25.3	24.6	27.0	15.4
2013	-	7.2	16.0	15.6	16.3	9.7	9.4	12.3	26.8	26.1	28.5	15.5
2014	-	6.6	15.0	14.4	16.3	9.2	9.4	13.0	27.7	25.9	28.3	-

* 일본은 15-29세가 아닌 15-19세 결과임. 15-19세 OECD 평균은 2008년은 7.9%, 2009년은 8.4%, 2010년 8.0%, 2011년 8.2%, 2012년 7.4%, 2013년 7.1%으로 OECD 평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OECD(2016),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5 January 2016)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 국제적 현황

- OECD 국가들의 경우 니트 비율은 인구규모, 불평등, 실업률 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남.

- 반면, 니트비율은 경제 규모가 크고 고등교육 이수자가 많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남.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NEET비율	1						
② 인구규모(로그)	.387 ^{***}	1					
③ 경제규모(로그)	-.654 ^{***}	-.296 ^{***}	1				
④ 고등교육 이수율	-.326 ^{***}	-.038	.577 ^{***}	1			
⑤ 불평등(지니계수)	.522 ^{***}	.482 ^{***}	-.256 ^{***}	.046	1		
⑥ 실업률(%)	.535 ^{***}	.066	-.350 ^{***}	-.186 ^{***}	.200 ^{***}	1	
⑦ 고용률(%)	-.816 ^{***}	-.219 ^{***}	.601 ^{***}	.360 ^{***}	-.262 ^{***}	-.617 ^{***}	1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5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402표본의 상관계수 값임.

• ***p<0.001

출처: 김기현(2015)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 국제적 현황

- OECD에서 니트는 구직 활동 여부에 따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구분, 비구직 니트 비중이 높음.

- 니트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구직 니트(실업자)	비구직 니트(비경제활동인구)
연령집단	15-19세	2.8	8.5
	20-24세	8.5	9.1
	25-29세	8.0	11.3
교육수준	중졸 이하	5.8	9.4
	고졸	7.4	8.7
	대졸 이상	6.9	6.4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2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이 연구의 니트(NEET) 정의와 분석자료

- ◎ 이 연구에서 니트 개념 정의
 - 청년 연령 규정을 15세에서 29세로 정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실업자 및 기혼자 포함)를 따르되, 경제활동인구조사나 노동패널조사 등에서 주된 활동으로 입시학원, 직업훈련기관, 고시학원 등에 통학 중인 경우를 제외
- ◎ 이 연구에서 분석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노동패널조사
 - 생활시간조사

출처: 김기현(2015)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 규모 추이

15-29세, 지난 1주간 '일하였음', '일시휴직', '학교통학', '학원, 훈련기관통학(OECD는 포함)' 제외 기준

경찰과 노동패널조사의 니트 비중이 유사하게 나와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세부적인 니트 실태 분석



자료: 통계청, 각년도,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 노동패널자료는 중단 가중치 적용 결과임
출처: 김기현(2015)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의 연령별 비교

□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니트 비중이 높아짐(OECD국가 전체 경향과 유사)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5.6	27.9	38.1	23.7
2차(1999)	5.6	20.6	31.9	19.2
3차(2000)	4.6	20.5	32.6	19.5
4차(2001)	4.7	22.8	29.0	19.4
5차(2002)	6.0	25.4	26.2	19.7
6차(2003)	4.9	23.7	27.3	19.3
7차(2004)	4.9	24.4	26.6	19.1
8차(2005)	3.2	23.3	26.3	18.0
9차(2006)	2.8	21.7	25.3	16.9
10차(2007)	3.7	21.4	27.2	17.5
11차(2008)	3.7	21.2	24.6	16.1
12차(2009)	4.3	25.2	22.8	17.0
13차(2010)	5.6	23.3	22.9	16.7
14차(2011)	6.5	23.0	26.7	18.0
15차(2012)	6.1	20.2	20.4	15.1
16차(2013)	3.0	24.7	21.3	16.5
17차(2014)	5.2	22.7	24.2	18.1

출처: 김기현(2015), 노동패널 1-17차년도 자료 분석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의 연령별 비교

□ 니트 중 여성, 대학 재학(전문대 포함) 이상, 서울외지역, 미혼 비중이 높고 장애 비중은 실업자에 비해 높음

		청년 취업자	청년 실업자	청년 니트(NEET)
성별	남성	39.9	59.5	47.8
	여성	60.1	40.5	52.2
교육	대재(전문대 포함) 이상	86.3	81.7	77.7
	대재 미만	13.7	18.3	22.3
지역	서울	22.5	52.8	23.8
	서울 외 지역	77.5	47.2	76.2
결혼	미혼	90.8	100.0	85.6
	기혼	9.2	0.0	14.4
장애	장애 없음	99.3	97.5	96.9
	장애 있음	0.7	2.5	3.1

출처: 김기현(2015), 노동패널 17차년도 자료 분석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의 주된 활동

남성 니트는 구직활동, 취업/진학준비, 쉬었음 비중이, 대재 이상은 구직활동, 취업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전체	성별		교육수준	
		남성	여성	대재(전문대 포함) 이상	대재 미만
구직활동	144	18.9	10.4	16.4	7.5
가사	115	0.0	22.0	11.2	12.5
육아	65	0.0	12.5	7.2	4.3
심신장애	27	4.8	0.8	0.5	10.5
취업준비(통학 제외)	21.2	21.7	20.9	25.7	5.9
진학준비(통학 제외)	4.7	5.5	3.9	3.3	9.4
군입대 대기	7.7	16.2	0.0	7.5	8.4
발령대기	1.1	0.0	2.0	1.0	1.1
결혼준비	0.7	0.0	1.3	0.9	0.0
쉬었음	28.6	31.8	25.7	25.8	38.5
기타	0.8	1.1	0.5	0.5	2.0

출처: 김기현(2015), 노동패널 17차년도 자료 분석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7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의 비구직 사유

청년 비구직 니트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38.7%)가 가장 높게 나타남.

비구직 니트 중 구직 단념 응답은 9.3%였고 여성과 대학 재학(전문대 포함) 이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전체	성별		교육수준	
		남성	여성	대재 이상	대재 미만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21.9	34.0	19.6	19.7	53.6
원하는 임금수준 또는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38.7	42.1	39.2	46.2	0.0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9.3	6.7	10.4	10.7	0.0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7.2	7.7	7.0	2.8	36.6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12.4	0.0	18.2	12.8	9.9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3.0	9.5	0.0	3.5	0.0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3.8	0.0	5.5	4.3	0.0

출처: 김기현(2015), 노동패널 17차년도 자료 분석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8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청년 니트(NEET)의 생활시간

생활시간조사에서 주부, 실업자(1주 아닌 이틀 기준)를 제외한 니트 추정 통해 개인특성 파악

행동 대분류(단위: 분)	청년(15-29세) 니트	청년 취업자	청년 실업자
전체	1440.00	1440.00	1440.00
개인유지	670.50	618.31	643.24
일	7.56	409.20	95.14
학습	91.27	24.28	35.54
가정관리	48.42	28.17	38.92
가족 보살피기	9.04	9.28	7.70
참여 및 봉사활동	58.66	2.66	14.73
교제 및 여가활동	447.78	218.79	485.54
기타	106.78	129.31	119.19

자료: 김기현(2008),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년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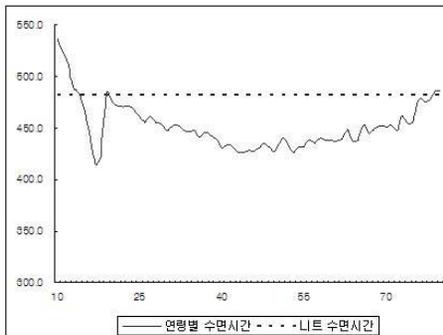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9

02.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 니트(N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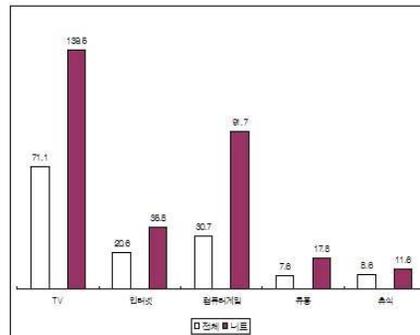
청년 니트(NEET)의 생활시간

니트의 수면시간은 매우 길고 일반청년과 비교해 TV나 컴퓨터게임 시간이 길게 나타남

〈니트 수면시간과 연령별 수면시간비교(분)〉



〈일반 청년과 니트 주요 여가시간 비교(분)〉



자료: 김기현(2008),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년 원자료 분석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

03. 정책과제

03. 정책과제

- 1 청년 니트에 대한 관심 제고
- 2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NEET 정의 및 정책접근
- 3 니트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니트 지원 정책

03. 정책과제

01 청년 니트에 대한 관심 제고

- OECD(2014)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 제기
- 청년 니트는 가장 활동적인 시기의 유휴 인력화로 심각한 사회문제

OECD 청년 행동계획 우선지원대상(2014)

구분	지원 방안
청년 NEET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 및 장기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그룹으로 유아 교육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음. 세대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과 고립을 줄이기 위한 공간 계획 개선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경제개발과 기업 유치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신규졸업자	학교교육은 마쳤으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수요 측면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직장 이탈을 줄이고 적절한 승진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진입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음.
일자리 mismatch에 직면한 대학졸업자	평상시라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그룹으로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격기준보다 낮은 부문에 취업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이동을 했을 수 있음. 보다 폭넓은 스킬과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수요-공급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대학 졸업자들로 하여금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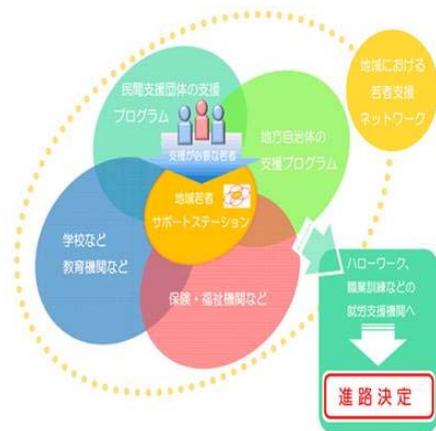
자료: OECD(2014),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 for an Irish Youth Guarantee
출처: 김문길 외(2015)

03. 정책과제

01 청년 니트에 대한 관심 제고 : 대상 중심

- 1 일본은 청소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6년 3월) 통해 핵심정책대상 지원
- 2 신규일자 대상 블랙기업 대응(채용정보 공개 의무화, 노동법 위반 구인 불가) 명시
- 3 15-39세 청년 니트 대상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기능 및 시설 정비 명시
- 4 아동부터 청년까지(0-30세) 정책 포괄 아동청년육성지원법 제정(10년)

일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지원체계



03. 청년 취업취약계층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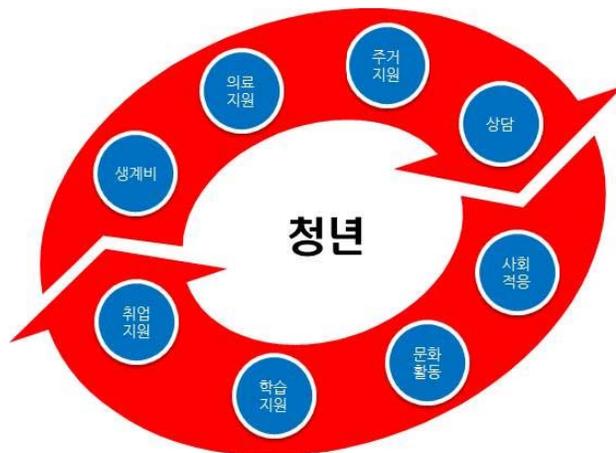
02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NEET 정의 및 정책접근

- 고등교육 비율이 높고, 비형식교육참여자가 많은 한국의 특수 상황을 반영할 필요
- OECD통계 각주처리 등을 통한 국제 비교 필요
*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동백서에 공식통계 제시

03. 정책과제

03 니트내부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니트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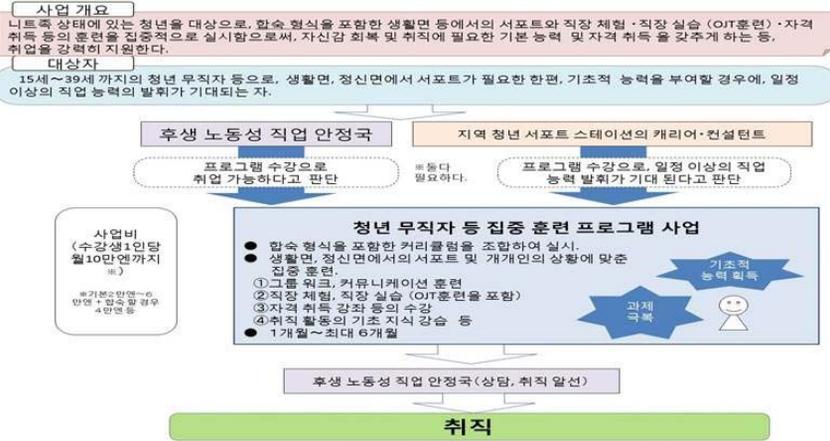
- 취업만이 아니라 주거,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대상 중심 접근 필요



03. 정책과제

03 다투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다투 지원정책

니트 맞춤형 지원 - 일본 사례(니트 집중훈련)



감사합니다

발표 2
.....

제3차 청년정책포럼



청년근로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김 문 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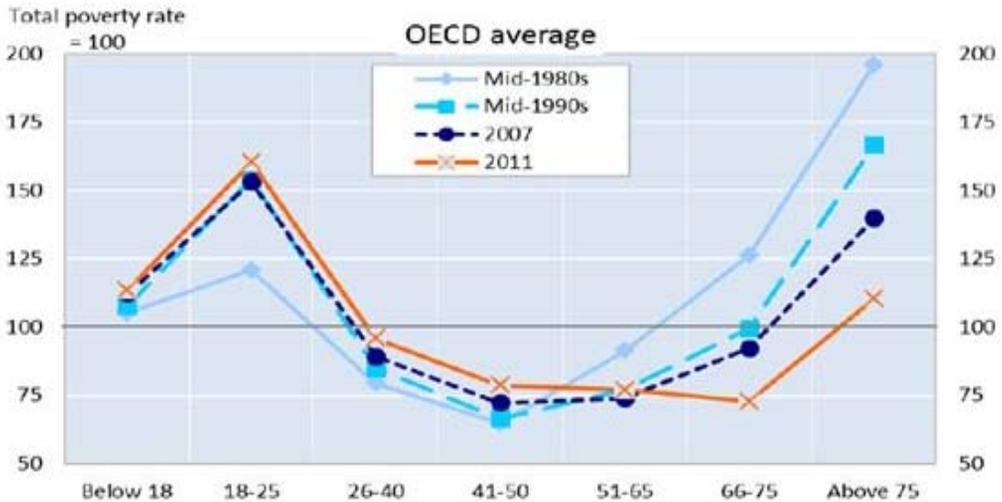
주요내용 요약

1. 문제 제기

□ OECD 국가들의 소득빈곤 위험 집단은 노인이었으나 최근 청년으로 대상이 바뀌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 경향을 더욱 가속화

-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소득증가율이 둔화 또는 감소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율도 다른 세대와 달리 빠른 속도로 증가

〈그림 1〉 OECD국가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1980년대-2011



자료 : OECD(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Income Inequality Update

□ 우리나라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양호하나, 비정규직 비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 등으로 청년빈곤에 대한 관심 증가

* 가계금융·복지조사('14), 9.9%(20대) 8.1%(30대)<11.3%(40대) 13.0%(50대) 48.5%(65세이상)

□ 한번 빈곤 경험시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빈곤의 점착성(sticky)'과 탈산업화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환경은 청년근로빈곤에 대한 정책적 환기가 필요함을 시사

2.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¹⁾

□ 경제활동참가 기준 청년근로빈곤율은 4.4%(‘13)로 중장년의 6.8%(‘13)에 비해 낮은 수준

- 청년근로빈곤율은 ‘07년 5.8%에서 ‘13년 4.4%로 1.4%p 감소한 반면, 중장년은 같은 기간 2.4%p(‘07 9.2% → ‘13 6.8%)로 감소해, 중장년근로빈곤율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

〈표 1〉 협의의 근로빈곤율 변화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협의의 근로빈곤율 (경제활동참가 기준)	19~34세	5.8	5.0	4.0	4.1	3.7	4.1	4.4
	35~55세	9.2	7.7	7.3	6.3	6.3	6.4	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 경제활동참가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와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한 광의의 청년근로빈곤율은 5.9%(‘13)로 중장년층(7.7%) 보다 낮은 수준이나,

- 청년근로빈곤율은 ‘07년 5.9%에서 감소하다 ‘13년 5.9%로 다시 증가한 반면, 중장년근로빈곤율은 감소폭이 큼(‘07 9.3% → ‘13 7.7%)

〈표 2〉 광의의 근로빈곤율 변화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광의의 근로빈곤율 (경활 및 비경활포함)	19~34세	5.9	5.4	4.9	5.2	5.1	5.3	5.9
	35~55세	9.3	8.0	8.4	7.3	7.8	7.3	7.7

주: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 (연령) 전기청년층(19~25세 8.5%)이 후기청년(26~34세 4.8%)에 비해 근로빈곤율이 더 높음
- (성별) 남성(6.6%)이 여성(5.2%)보다 청년근로빈곤율이 더 높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이용
빈곤선은 균등화 중위가처분소득 50%로 설정

- **(교육수준)** 고졸 이하의 청년근로빈곤율(8.7%)이 대학 이상의 청년근로빈곤율(5.2%)보다 높음
- **(가구주)** 비가구주 청년빈곤율(6.3%)이 가구주 청년근로빈곤율(4.8%) 보다 높음
- **(사업장규모)**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청년근로빈곤율이 높음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광의의 청년근로빈곤율(19~34세)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령	19~25세	5.7	5.2	6.5	5.0	5.8	7.0	8.5
	26~34세	5.9	5.4	4.2	5.3	4.8	4.5	4.8
성별	남 성	6.5	5.2	4.9	5.7	5.9	5.2	6.6
	여 성	5.3	5.6	4.9	4.7	4.2	5.3	5.2
교육수준	고졸이하	9.7	8.6	8.1	10.1	7.8	9.4	8.7
	대 학이상	4.0	4.1	4.0	4.0	4.4	4.2	5.2
가구주 여부	가구주	6.3	5.3	4.4	3.6	3.0	5.2	4.7
	비가구주	5.7	5.4	5.1	5.7	5.7	5.3	6.3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별	10인 미만	7.1	6.5	5.1	5.9	4.8	5.8	6.4
	10~50인 미만	5.0	3.1	3.8	2.6	3.4	3.9	3.7
	50~100인 미만	3.2	2.4	6.9	2.2	6.3	5.9	6.4
	100인 이상	0.8	2.6	1.1	1.2	0.6	1.0	0.9

주 :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범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3. 정책제언

①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범위 확대

- 제도 도입 후 수차례 적용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미혼의 청년근로빈곤층은 포괄하지 못함
- 유자녀 근로빈곤청년에 대한 소득기준과 급여기준 상향, 재산기준의 하향과 함께 근로빈곤청년 확대적용 방안 고민 필요

② 최저임금 현실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청년근로빈곤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상폭 제안 및 정규직 전환 향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

③ 청년빈곤층 취업역량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저소득층, 청년층 고용서비스 사업의 청년인지도 제고
- 근로빈곤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멘토, 관계 등)·문화적 자본(문화생활, 체험, 여행 등) 지원

발 표 자 료

청년근로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2016. 6. 28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순서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1

문제제기

02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03

청년근로빈곤 사례

04

결론과 정책제언

01

문제제기

1. 문제제기

③ 청년의 정의

● 사전적 정의

- (국어사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 연령에 따른 정의

- (법령) 만 19~34세(청년고용특별법, 2013)
 - (통계) 만 20~29세(고용률, 실업률), 만 15~29세(경찰조사 청년층부가조사)
 - (정책) 만 19~34세(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만 18~34세(취업성공패키지)
- cf. (해외) 15~24세(UN, EU, OECD, ILO 등), 18~34세(Millennials), 15~39세(일본)

1. 문제제기

② 청년의 정의

④ 이행 과정(process of transition to adult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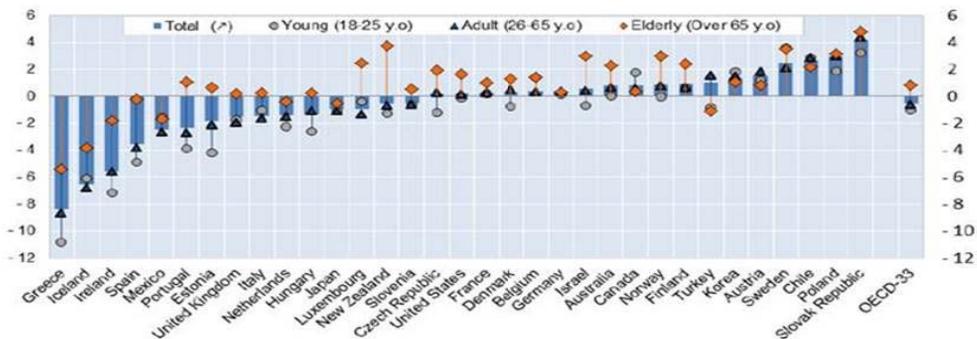
- 아동기의 비독립(dependency)으로부터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독립으로의 이행기간(period of transition)으로 정의 (Fahmy 2006, Mackie 2003 재인용)
- 성인 이행의 3가지 조건 (Galland 1984, 1991; Mackie 2013 재인용)
 - ① 학교에서 일자리로('직업'이행)
 - ② 부모의 집에서 나의 집으로('주거'이행)
 - ③ 원 가족에서 새 가족으로('가족'이행)
- 성인으로서의 여정(청년기)이 자유와 기회를 만끽할 좋은 기회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개인의 능력과 배경, 사회환경에 의해 결정

1. 문제제기

② 선진국의 청년과 빈곤은?

④ 주요 OECD 국가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변화율: 2007-2011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노인세대만 증가, 청년세대 가장 큰 감소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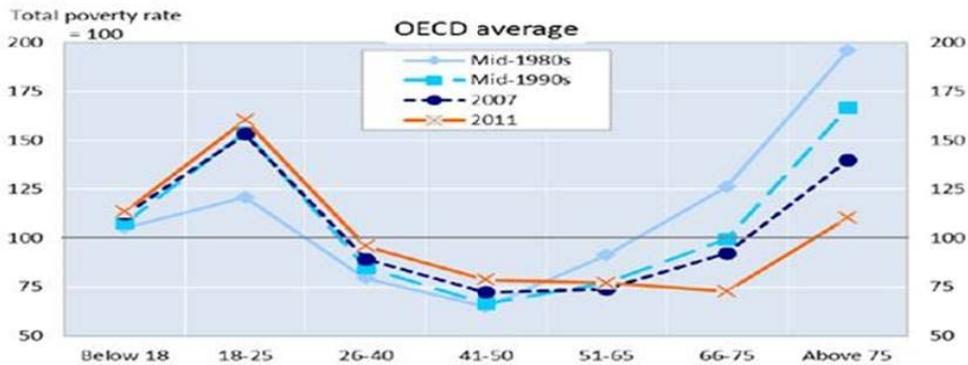
자료: OECD(2014) Rising inequality :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1. 문제제기

② 선진국의 청년과 빈곤은?

④ 주요 OECD 국가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1980년대-2011

- 최근 25년간 빈곤위험집단이 노인에서 청년으로 변화. feat. 2008년 경제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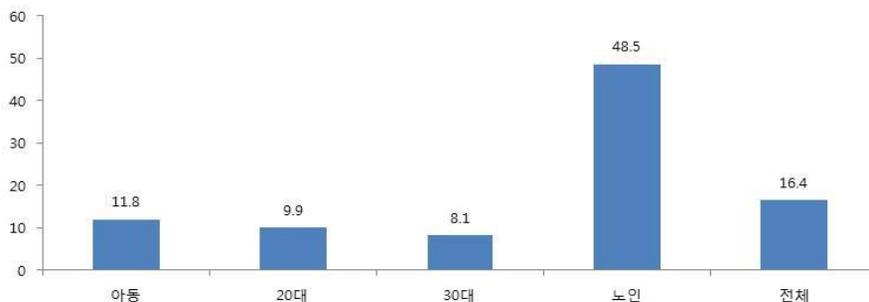
자료: OECD(2014) Rising inequality :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1. 문제제기

② 우리나라 청년의 빈곤

④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빈곤은 병렬될 수 있는 개념인가?

- 통계(빈곤율, 2014년 기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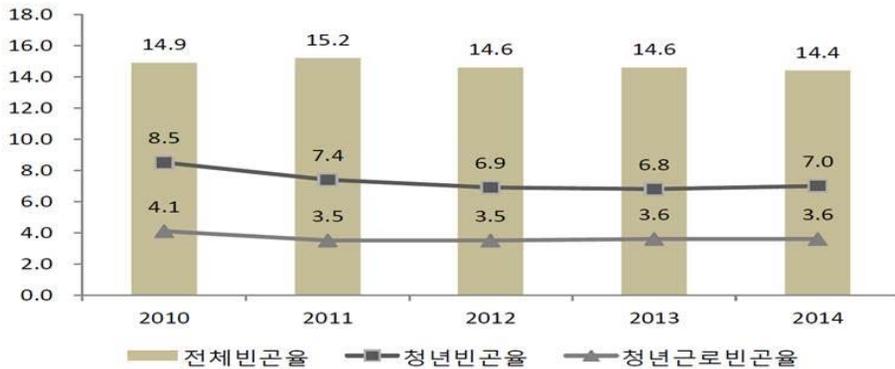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1. 문제제기

② 우리나라 청년의 빈곤

-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빈곤, 근로빈곤은 병렬될 수 있는 개념인가?
- 다른 통계 역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추세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1. 문제제기

② 우리나라 청년의 소득, 빈곤과 관련된 환경들

- 청년실업률 : 월별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갱신
- 비정규직 규모 : 노인, 청년 비정규직 비중 증가
- 저임금 근로자 비중 : 20대 이하 청년층만 증가
- 청년가구주 가구 가계수지 : 실질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② 예상되는 귀결

- 이론적으로 높은 실업률은 취업 후 낮은 임금으로 귀결

자료: 김문길 외(2015) : 30-33

② 빈곤과 노동시장의 특성

● 빈곤의 점착성

- 빈곤이 가지는 상황의존성(state dependence)과 기간종속성(duration dependence)에 따라 한 번 빈곤해지면 다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좋은 근로조건, 높은 임금, 고용안정 등의 1차 부문과 열악한 근로조건, 낮은 임금, 고용불안정 등의 2차 부문으로 구성된다(분절이론)
- 한번 2차 부문에 속하게 되면 1차 부문으로 옮겨가기 쉽지 않다

02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2. 근로빈곤의 규모와 실태

㉠ 근로빈곤의 정의 : 해외

	기관/자료	노동에 대한 정의	빈곤에 대한 정의
EU	- Eurostat	- 주당 15시간 이상 취업자 - 연간 7월 이상 취업자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프랑스	- 통계청(INSEE) - 일반 연구자 -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SI)	- 연간 6월 이상 취업/구직자 - 연간 6월 이상 취업 - 연간 1월 이상 취업 경험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때로 60~70%) (상대소득빈곤)
벨기에	-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SI)	- 연간 6월 이상 취업/구직자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스위스	- 연방통계청 - 일반 연구자	- 근로시간과 무관한 전 경찰인구 - 전일제 근로자 - 주당 40시간 이상 영리활동자	- 행정적 빈곤선
미국	- 통계국(CB) - 노동통계국(BLS) - 일반 연구자	- 가구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1,750시간(44주) 이상 - 연간 6월(27주) 이상 취업/구직자 - 연간 1000시간 이상 일한 성인 - 통계청/노동통계청 기준	- 연방빈곤선(FPL)(절대빈곤선) - 연방 빈곤선의 125~150% - 200% 미만 (절대소득빈곤)
호주	- 사회정책연구센터	- 근로시간과 무관한 전 경찰인구	- Henderson 절대빈곤선 (절대소득빈곤)
캐나다	- 복지평의회(NCW)	- 임금이나 자영소득이 총 가구소득의 50% 이상	- 통계청의 저소득기준선 (절대소득빈곤)
	- 사회발전위원회(CCSO)	- 연간 49주 이상 전일제 (30시간 이상) 또는 시간제로 일한 성인	- CCSO의 상대적 저소득기준선 (상대소득빈곤)
	- 정책연구네트워크(CPRN)	- 연간 12개월 전일제 근로자	- 상대저소득기준선: 연간 2만불 미만 (상대소득빈곤)

자료: 김문길 외(2011).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외(2015) 재인용

2. 성인으로서의 여정: 외부적 조건들

㉠ 근로빈곤의 정의 : 국내

연구자	노동에 대한 정의	빈곤에 대한 정의
노대영(2007)	-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취업빈곤층 - 경제활동빈곤층으로 6개월의 근로 및 구직기간 초과자 - 경제활동빈곤층	- 빈곤선: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상대소득빈곤)
홍경준(2005)	- 근로능력 빈곤층(15세 이상 가구원 중 연로, 퇴직으로 응답한 65세 이상과 심신장애인 제외) -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취업빈곤층) - 연간 6개월 이상 경제활동빈곤층	- 빈곤선: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때로 60~70%) (상대소득빈곤)
강신욱(2008)	- 과거 중심적 개념: 6개월 이상 취업·구직활동을 한 사람 (일반빈곤층, 근로빈곤층) - 현재 중심적 개념: 조사시점 취업을 했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경찰·취업·실직 빈곤층) - 미래 중심적 개념: 건강상태나 가구여건상 근로 가능한 사람(근로가능빈곤층, 근로연령빈곤층)	- 빈곤선: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이병희·반정호 ~2009	-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취업빈곤층: 중고생,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65세 이상, 재학 중, 군복무 중, 중증장애인 제외)	- 빈곤선: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이병희(2010)	- 근로연령 빈곤층(가구주가 근로연령(15~64세)인 가구에 속한 개인)	- 빈곤선: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상대소득빈곤)

자료: 김문길 외(2011).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외(2015) 재인용

2.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② 분석의 개요

- **이용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2007~2013) 원자료
- **근로빈곤 정의**
 - 근로: 경제활동참가자, 경제활동참가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 포함
 - 빈곤: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 **주거빈곤 정의**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소득대비 임대료(RIR) 20%
- **청년 연령 정의 :** 만19~34세

2.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② 소득빈곤율과 근로빈곤율(협의) 비교

● 경제활동참가 기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득빈곤율	19~34세	6.9	6.5	5.6	6.1	6.6	6.0	7.0
	35~55세	11.2	10.6	9.8	8.6	9.3	9.0	9.8
근로빈곤율 (경제활동참가 기준)	19~34세	5.8	5.0	4.0	4.1	3.7	4.1	4.4
	35~55세	9.2	7.7	7.3	6.3	6.3	6.4	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 근로빈곤율(광의) 변화 추이

- 경제활동참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 포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근로빈곤율	19~34세	5.9	5.4	4.9	5.2	5.1	5.3	5.9
(경제활동참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 포함)	35~55세	9.3	8.0	8.4	7.3	7.8	7.3	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 근로빈곤율(광의) 변화 추이

- 경제활동참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 포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근로빈곤율	19~34세	5.9	5.4	4.9	5.2	5.1	5.3	5.9
(경제활동참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 포함)	35~55세	9.3	8.0	8.4	7.3	7.8	7.3	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④ 청년근로빈곤층의 제 특성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청년근로 빈곤율	19~25세	5.7	5.2	6.5	5.0	5.8	7.0	8.5
	26~34세	5.9	5.4	4.2	5.3	4.8	4.5	4.8
	남성	6.5	5.2	4.9	5.7	5.9	5.2	6.6
	여성	5.3	5.6	4.9	4.7	4.2	5.3	5.2
	가구주	6.3	5.3	4.4	3.6	3.0	5.2	4.7
	비가구주	5.7	5.4	5.1	5.7	5.7	5.3	6.3
	고졸이하	9.7	8.6	8.1	10.1	7.8	9.4	8.7
	대학이상	4.0	4.1	4.0	4.0	4.4	4.2	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④ 청년근로빈곤층의 동태

구분	4회 이상	2~3회	1회	빈곤경험 없음	
빈곤동태변화	19~34세	13.8(32.3)	16.5(38.6)	12.4(29.0)	57.3(100.0)
	35~55세	13.1(39.3)	8.8(26.4)	11.4(34.2)	66.7(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④ 청년주거빈곤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거빈곤	9.8	9.4	7.8	7.1	9.6	8.0	8.9
근로 or 주거 빈곤	14.6	14.2	11.9	12.4	15.1	12.4	13.2
근로 & 주거 빈곤	1.3	1.4	1.1	0.9	1.2	1.1	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년도

03

청년근로빈곤 사례*

* 14명의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므로, 여기서 보고되는 내용들이 전체 근로빈곤청년의 실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3. 청년근로빈곤 사례

② 근로조건

● 임금, 유보임금

-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생 4명의 평균월급 **135만원** cf.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임금조정실태조사, 대졸초임 290.9만원

“제가 160만원 받지만 저보다 더 못 받는 애들도 많거든요. 초봉이 보통 130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졸자인데요?) 네, 저도 처음에 130만원 받았으니까” (27세 대졸 여성)

-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수준도 낮다

“솔직히 저는 극한 상황이라 150만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180만원? 200만원이 넘으면 좋죠. 근데 그건 좀 힘드니까... 근로 조건은 주5일이면 돼요. 계약직도 괜찮아요. 왜냐면 1년동안 일을 하잖아요.” (25세 대졸 여성)

3. 청년근로빈곤 사례

② 근로조건

● 근로시간, 복리후생

-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거나, 부족한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야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한 자기투자의 시간을 갖기 어렵다.

“아침시 반에 출근을 해서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차가 끌리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27세 대졸 여성)

“너무 끝나는 시간이 불규칙하다보니까 (...) 끝난 뒤에 제가 워 파트타임을 한 다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준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 안되니까” (27세 대졸 남성)

- 소득단절의 공포때문에 부당한 처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열악한 복리후생을 견뎌야 한다.

“제가 했던 그 일들은 둘 다 쿼가가 없었어요. 일 자체가 주간 이틀하면 야간 이틀 쿼무 이틀. 주간 상일하면 야간상일, 쿼무 상일 (...) 복리후생 같은 게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27세 대졸 여성)

“제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모님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저도 집세도 당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지도 못하고” (27세 전문대졸 남성)

3. 청년근로빈곤 사례

② 빈곤

● 부모의 빈곤과 그 귀결

- "빈곤청년의 생애사를 추적하면 반드시 그들 부모의 빈곤이 있다"(안수찬, 2011). 연구참여자 모두 부모의 빈곤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 부모의 빈곤은 교육(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만한 인적자본을 형성하지 못한다.

'(편의점에서 9시간 일하고 나면) 공부하고 이제 집에서 아니면 도서관가서. 그래도 잠은 좀 자려고 하고 있어요. 안그러면 우울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27세 대졸예정 남성)

'공부 안했어요. 학교에서 별명이 '포자'였거든요 (-) 잘 수밖에 없는게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요. 술 사려. 그러면 그거 감시해야 되니까 어떻게 자요. 못자지' (27세 대졸예정 남성)

-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대학원 진학이나 졸업 유예는 학자금 대출이나 알바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청년근로빈곤 사례

② 빈곤

● 부모의 빈곤과 그 귀결

- 빈곤은 취업 또는 이직을 위한 스펙 형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 공채준비에 평균 13.3개월 소요(인크루트), 취업자의 70% 이상이 6개월 이상 소요(청년위원회)

* 대학생 절반이 스펙을 위한 취업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평균 130.4만원 지출(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 취업사교육에 1인당 월 평균 30.4만원 지출(총 180~360만원)(청년위원회)

* 취업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는 첫 취업자 40%, 경력직 구직자 60%로 추정. 구인과 구직 사이에서 효과적인 정보전달 기능 수행, 이직의 경우 임금상승 효과까지(김영철, 2010)

- 좁은 취업문에,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충족할 만한 경제력과 시간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빈곤청년들은 열악한 조건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 하는 일의 특성상 경력을 인정받아 보다 나은 일자리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나 서비스업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청년근로빈곤 사례

⑤ 인식과 태도

① 삶의 만족도

- 만족은 하지만...

"죽을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도 저도 별과 나라에서도 도와주니까 살 수는 있잖아요 (-) 돈에 대해 만족하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25세 고졸 여성)

- 결핍은 삶을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동기들이나 애들끼리 만나면 월급은 받을 안해도 얼마 넘느냐는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청약을 들었느냐, 뭘 했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27세 대졸 여성)

- 최후의 끈만은...

"여기서 제가 되버리면 다 죽는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27세 대졸예정 남성)

3. 청년근로빈곤 사례

⑤ 인식과 태도

① 미래에 대한 전망

- (자신의 미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술자리 말하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결혼을 한다고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27세 대졸 여성)

- (자녀의 미래) 자녀세대가 자신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 (결혼과 출산) 경제적 형편 때문에 결혼도 어렵고, 미래 전망 때문에 출산도 주저하게 된다.

"일단 짐이랑 결혼할 자금이랑 (-) 애를 낳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력도 필요하고, 그런 직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 (결혼자금 2천만원) 못 모을 것 같아요" (25세 대졸 여성)

"그거는 제 입장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 저는 하나라도 좋으니까 낳으면 중요. 잘 키우고 싶은데, 글썄요" (27세 대졸예정 남성)

04

결론과 정책제언

4. 결론과 정책제언

④ 결론 : 사례연구

● 직업이행

- 취업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명목상 직업이행을 완수했으나, 주거이행과 가족이행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근로빈곤'상황 이어서 완전한 직업이행을 완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주거이행

- 소득이 낮기 때문에 RIR 기준으로 볼 때 주거불안정성이 높고, 특히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들의 경우 높은 주거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가족이행

- 직업, 주거이행이 완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결혼과 출산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4. 결론과 정책제언

④ 정책제언

● 현재 근로빈곤층 지원

- 근로장려세제 적용범위 확대 : 유자녀 근로빈곤 청년에 대한 소득기준과 급여수준 상향, 재산기준 하향조정과 더불어 무자녀 근로빈곤 청년에 대한 지원자격 부여방안 고려 필요
 - * 현재 무자녀 단독가구 연령 기준: 60세 이상. 2017년까지 40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
 - * 미국. 오바마대통령. 21세에서 25세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확대 제안
- 최저임금 현실화 검토 : 최저임금이 임금상한으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해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 임금, 복리후생 수준 개선

4. 결론과 정책제언

④ 정책제언

● 미래 근로빈곤층 지원

- 청년빈곤층 취업역량 강화 : '공공형 청년취업지원관제도' 도입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역할 확대
- 청년빈곤층 취업연계 서비스 강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역자활센터(청소년자활) 등 기존 사업의 '청년인지' 제고
-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확충 : 근로빈곤청년의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파악하고, 그 확충방안을 모색

④ 정책제언

● 장기적, 포괄적 접근

- 정부의 취약계층 직접고용 : ELR(Employer of Last Resort) 개념에 입각한 일자리 제공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기존 제도와 연계)
- 청년종합실태조사 실시 : 청년, 근로빈곤 관련 공식 통계자료가 부재. 다양한 실태와 인식,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종합실태조사 실시

감사합니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